

2023
이감
인사
이트



2024 학년도
성공적인 수능
준비를 위한 이감의
수능분석자료집

I

주요 데이터 분석

등급컷 / 오답률 TOP 10

[등급컷 분석]

등급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대수능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진학사
1	88/84	94/88	93/90	91/89	93/91
2	81/77	87/82	88/85	83/83	86/84
3	73/69	81/76	81/78	74/74	77/75
4	63/59	72/67	74/71	62/63	67/66
5	52/48	60/55	63/60	49/49	54/52
6	40/36	46/41	48/45	32/32	42/41
7	30/26	31/26	29/26	20/21	30/28
8	24/24	24/24	23/19	17/18	19/18

※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 01 예상 등급컷을 고려했을 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9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난도로 출제되었다. 객관적인 난도는 9월 모의평가에 비해 쉬웠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독서의 특정 지문이 어렵고 불명료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전체적인 시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구성이 2024학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낮겠지만, 특정 지문에서 막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훈련해 둘 필요가 있겠다.
- 02 예상 등급컷은 대푯값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의 격차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5~6점 정도의 격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화법과 작문'과 달리 '언어와 매체'의 경우 언어(문법) 영역에서 까다로운 함정이 있는 문항들이 있어서 오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준점수 차이로 인한 유불리를 고려했을 때, 최상위권 수험생이라면 언어 학습이 부담되더라도 '언어와 매체'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2023학년도 대수능 국어 오답률 TOP 10 _ 화법과 작문]

(홀수형 기준/%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7	독서	3	85%	①	15%	21%	30%	22%	12%
2위	15	독서	2	70%	④	5%	35%	19%	30%	11%
3위	12	독서	3	62%	②	5%	38%	21%	26%	10%
4위	16	독서	2	59%	④	15%	13%	15%	41%	16%
5위	11	독서	2	57%	⑤	12%	10%	24%	11%	43%
6위	8	독서	3	54%	⑤	4%	13%	20%	17%	46%
7위	14	독서	2	40%	③	7%	14%	60%	14%	5%
8위	40	화작	2	35%	③	5%	12%	65%	15%	3%
9위	41	화작	3	30%	②	5%	70%	13%	7%	5%
10위	25	문학	2	25%	③	6%	5%	75%	6%	9%

독서 7 문학 1 화작 2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7문항, 문학 1문항, 화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법과 작문’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두 문항이나 포함된 것은 올해 수능이 처음이지만, 오답률 수치들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어려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작년 수능에서도 ‘화법과 작문’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문항의 오답률이 72%에 육박했었다.
- 02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1문항[→ 8번], 사회 지문에서 2문항[→ 11, 12번], 과학 지문에서 모든 문항[→ 14, 15, 16, 1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사실상 과학 지문을 얼마나 잘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체감 난도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가령 과학 지문을 최대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 선지를 처리하려 했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전체적인 시험 운영이 굉장히 험난했을 것이다. 실전에서는 완벽한 이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독해를 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감 모의고사는 그러한 운영을 연습할 수 있는 형태와 구성의 시험을 매년 일부 회차들에서 선보인 바 있다.
- 03 문학 영역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1문항[→ 25번]이 포함되었다. 이는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당시 해당 문항의 오답률이 59%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오답률이 25%에 불과하다. 즉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항이었다고 볼 수 없다. 올해 수능에서 문학 영역은 지나칠 정도로 평이한 양상을 보였지만, 이것이 일종의 경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04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II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과학 지문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정보량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압축적으로 구성된 짧은 글'을 지향하려는 경향은 전체적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9월 모의평가까지 '압축적으로 구성된 짧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려는 모습이 뚜렷하였다면, 정작 수능에서는 <보기> 문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항들이 묻는 바가 평면적이었다. 작년 수능에서 지나친 불친절이 문제가 되었다면, 올해 수능에서는 [그나마 과학 지문을 제외하면]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이다. 올해 평가원 시험들을 참조하여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지문 평가

- 작년에 처음 등장하였던 독서론[→ 1~3번]이 이번에도 출제되었으며, 변별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 난도와는 무관하게,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는지를 각 선지에서 묻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독해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 인문 영역의 두 지문을 합친 주제통합형 지문이 출제되었다. 비연계로 출제되었지만 지문과 선지가 모두 쉬웠기 때문에 특기할 점이 없다. 작년 수능에서는 처음부터 주제통합형 지문이 주는 부담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심적인 부담이 컸을 텐데, 적어도 올해 수능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덜했을 것이다. 비연계 지문인 만큼 직접적인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해당 시기의 연구들에 주목하여 이감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지문이 크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사회 지문은 이감국어교육연구소의 예상대로 기속 행위, 재량 행위를 다룬 법학 지문이 출제되었으며, 수능완성 137쪽이 연계되었다. 연계 학습이 충분히 유용하도록 EBS 교재에 수록된 핵심 개념들을 활용하면서도, 과학 지문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다른 내용들을 함께 엮어서 지문을 구성하려는 평가원의 고민이 엿보였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짧고 압축적인 구성으로 출제되었으며, 평소에 법학 지문의 구성에 익숙했다면, 그리고 관련 제재를 충분히 다룬 이감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였다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과학 지문의 경우 이감국어교육연구소의 예상대로 수능특강 289쪽의 ‘최소 제곱법’이 출제되었으나, EBS 교재에 서와 달리 생리학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과 비교했을 때 지문의 길이가 다소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불가피하게 삽입된 그래프의 분량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길이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에도 평가원의 ‘압축적이고 짧은 글’에 대한 지향은 기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 다. 해당 지문은 사실상 올해 수능에서 등급을 결정할 만한 지문으로, 정보들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불친절하게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독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 문항 평가

- 오답률 TOP 10 중 독서 문항이 7개이다. 지금까지의 시험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까다롭거나 새로운 유형은 등장하 지 않았으며, 각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의 깊이도 대부분이 얇은 편이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은 추론을 요구하는 7번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이 단순 내용 일치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며, 이는 8번 <보기> 문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해당 지문보다는 비 슷한 방향으로 출제된 6월 모의평가의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을 참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 사회 지문은 전형적인 법학 지문의 구성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9월 모의평가와도 구성이 동일하다. 11번 문항은 ‘재량 준칙’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의 요지를 각 선지들에서 점검하고 있다. <보기> 유형의 12번 문항은 숫자를 활용하되, 딱히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9월 모의평가와는 다른 방 향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항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설명하겠다.
- 과학 지문은 모든 문항의 오답률이 매우 높았는데, 각 선지에서 묻는 내용이 난해하다기보다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 어 내기가 어려웠던 탓이 크다. 관련하여 [지문 분석]과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02. 지문 분석

[4~9] (인문-인문) 중국과 조선의 '유서'와 서학의 수용

- (가)에서는 중국에서 비롯되어 고려와 조선에서도 활용된 백과사전인 '유서'에 대하여 서술하되, 그것을 특히 '17세기 조선 실학자들'의 관점에서 강조하였다면, (나)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17세기 조선 실학자들'이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제통합형 지문은 (가), (나)를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인데,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실학자들이 유서에 반영한 지식의 범주가 '주자학'에 한정되지 않았음에 주목하고, (나)에서 '서학'의 수용이 '주자학'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 연계 양상 : EBS 비연계 지문이다. 다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EBS 교재에서도 다루었던 만큼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는 유사한 제재의 지문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10~13] (사회) 민사와 행정 작용에서의 불확정 개념 :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주목해야 할 지문 (2023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A

- 법조문에서 문제 되는 '불확정 개념'을 민사, 행정 작용의 영역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 짧고 압축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별개인 두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기 수월한 지문은 아니다. 다만 전형적인 법학 지문의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평가원 기출과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법학 지문을 충분히 접했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완성 137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기속 행위, 재량 행위'가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연계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들에게는 문단3, 4의 독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민사 영역을 다룬 문단1, 2의 내용은 연계된 내용이 아니지만, 역시 손해 배상에 대한 전형적인 내용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만큼 크게 낯설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12번

❄ <보기> 설명

- 1) 위약금의 성격을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봐야 하는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위약벌]'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즉 이것들이 문단1, 2에 걸쳐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법학 지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 2) 먼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본다면[→ 손해 배상 예정액임이 증명되거나, 위약벌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여 그만큼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 약정되어 있었다면 약정액만큼을 받을 수 있다[문단2]. 다만 이때의 위약금은 법원에 의해 적당히 감액될 수도 있다[문단1].
- 3) 반면 '위약벌'로 본다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손해 액수가 아닌, 사전에 약정된 액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위약금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가 없다[문단2]. 또한 위약벌과 별개로,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 4) (가)는 위약금 약정이 없다는 정보만 주어졌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봐야 한다. 즉 (다)의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면 된다.

❖ **정답 설명 : ②**

- 1) (나)에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봐야 한다[<보기> 설명-2].
- 2) 을의 손해가 80으로 증명되었지만, 위약금 100을 약정하였으므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100만큼을 갑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가)에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봐야 한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이 갑에게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먼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한다. 즉 을의 손해가 증명되지 못했다면 을은 갑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최적 경로] 보다 요령껏 접근하자면, 선지의 진술처럼 법원이 감액할 수 없으려면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에서는 그 성격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약벌'이 아닌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이미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에서 위약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봐야 한다. 을의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위약금 100을 약정하였으므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100만큼을 갑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위약벌'이 아니라서,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④ (다)에서 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 즉 채권자 을은 약정된 100만큼의 위약금을 갑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을이 손해 액수를 80으로 증명하였으므로 80 또한 배상받을 수 있다. 즉 갑이 을에게 합하여 18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여기서의 위약금의 성격은 '위약벌'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가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경로 이탈] 이때 지급해야 하는 180 중에서 80은 결국 손해 배상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약금과는 별개인 것으로[→ 위약금의 성격은 이미 '위약벌'로 증명된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다)에서 위약금은 '위약벌'로 봐야 한다. 즉 채권자 을은 약정된 100만큼의 위약금을 갑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을의 손해가 증명되었다면, 그만큼을 위약금과는 별도로 손해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겠지만,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갑은 을에게 100만큼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4~17] (과학) 기초 대사량과 최소 제곱법

주목해야 할 지문 (2023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A

- 이 지문의 핵심은 '비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데에 있다. '비례'를 이해해야만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른 일반적인 그래프'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은 직선 그래프'를 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지문의 초점은 [지문 분석]을 활용하자.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289쪽 연계 지문이다.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최소 제곱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였다면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EBS 교재에서는 최소 제곱법을 본래의 영역에서 다루었다면, 올해 수능에서는 연계를 위해 해당 개념을 생리학의 영역에서 다루면서 각종 정보들이 불명료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지문의 취지를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연계에도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연계를 충분히 선보일 계획이다.

정답 확인

14 ③ 15 ④ 16 ④ 17 ①

지문 평가

'비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기초 대사량이 무엇에 비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글의 초점이다. 다만 그러한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문단3에서 비로소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도 분명히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자.

카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기초 대사량, 최소 제곱법

대사량, 기초 대사량, 직접법, 간접법, 체표 면적, 순서쌍, 상용로그, 기울기, L-그래프, 상대 성장, 최소 제곱법, 편차, 클라이버의 법칙, 대사 체중

문단 1 기초 대사량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그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맥락 짚기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이다. '대사량'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 대사량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분하여 '기초 대사량'으로 칭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 [→ 대사량] 중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양을 가리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고 있는 공복 상태의 동물'이라면 별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만큼, 열량을 소모할 이유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소모되는 열량을 가리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 없이도 소모되는 열량 인 만큼, 그 열량조차 없으면 생존을 이어 갈 수가 없을 테니,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라 하는 것이다.

맥락 짚기 또한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자.

근육량 ↑ ⇒ 기초 대사량 ↑

문단 2 직접법과 간접법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맥락 짚기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주어졌으니, 이를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기초 대사량은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이자,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다[문단]. 두 방법은 그중 각각 하나씩을 근거로 하여 측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직접법	간접법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측정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 추정

문단 3 비례 관계

1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比)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0.67}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맥락 짚기 '체표 면적', '(체중)^{0.67}', 그리고 '기초 대사량'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체중)^{0.67} ↑ ⇒ 체표 면적 ↑ ⇒ 기초 대사량 ↑

주목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 대사량'은 '(체중)^{0.67}'에 비례하지만, '체중'에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즉 '체중'과 '(체중)^{0.67}'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설명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2W)/(W) = 2이다.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2W)^{0.67} / (W)^{0.67} = 2^{0.67}, 즉 약 1.6이 된다.

▶ '체중'과 '(체중)^{0.67}'이 구분되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읽어 내려야 한다. 체중의 증가율이 2일 때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1.60이라면, 이 둘은 비례하지 않는다. 앞서 짚은 대로, 둘이 '비례한다'는 것은, 둘이 항상 일정한 비(比)를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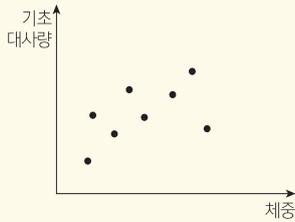
주목 반면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질 때 (체중)^{0.67}의 증가율은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과 똑같이 약 1.60이 된다. 즉 (체중)^{0.67}과 기초 대사량은 항상 일정한 비를 갖기 때문에, 이 둘은 비례한다.

- 체중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 일정한 비를 갖지 않음
∴ '체중'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하지 않음
- (체중)^{0.67}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 일정한 비를 가짐
∴ '(체중)^{0.67}'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함

문단 4 클라이버의 분석

1930년대에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다.

▶ '클라이버'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물론 '체중'과 '기초 대사량'은 비례하지 않으므로[문단3-1], 이를 통해서는 '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겠다.



문단 5 L-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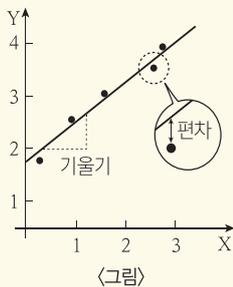
1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 주목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는 '체중'과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에 그대로 대응된다[문단3-2]. 즉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들이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하는 경우와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했어야 한다.

• 체중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름]
 ⇒ 일정한 비를 갖지 않음
 ∴ '체중'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하지 않음
 ⇒ 그래프에서 순서쌍이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함

▶ 클라이버는 '체중'과 '기초 대사량'을 변수로 삼았으므로 [→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서로 다르므로], 이때의 측정 결과 역시 그래프에서 순서쌍들이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다.

2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 '상용로그'를 취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용로그'를 취한 순서쌍은 <그림>과 같이 곡선이 아닌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얻은 그래프를 가리켜 'L-그래프'라고 한다.

문단 6 L-그래프의 활용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 이렇게 L-그래프의 '직선'을 활용하면, 두 변수 [→ 체중,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가 있다[문단5-2]. 가령 앞서 설명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작으므로[문단3-2],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다.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1과 같다	1보다 크다
체중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체중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체중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 주목 'L-그래프'를 취해서 순서쌍이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고 하여 [→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해서],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 비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은 경우에만 [→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경우에만] 두 변수는 비례한다.

▶ 참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 결국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ext{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 = \frac{\log(\text{기초 대사량의 증가율})}{\log(\text{체중의 증가율})}$$

문단 7 상대 성장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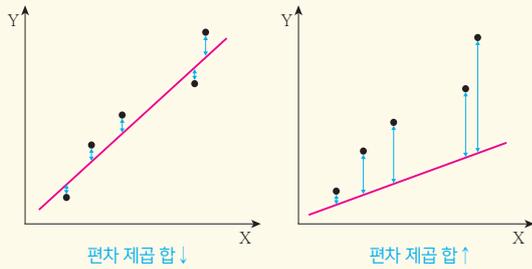
▶ 'L-그래프'에서 순서쌍이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할 경우, 두 변수의 관계를 '상대 성장'이라고 표현한다. 즉 '기초 대사량'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문단 8 최소 제곱법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우선, 그래프에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댓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 합'이며, **편차 제곱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 L-그래프에서 순서쌍은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하는데, 이때 최적의 직선을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최소 제곱법'이다.

▶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순서쌍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편차'라 한다. '편차 제곱 합'이 작은 직선일수록, 순서쌍이 그 직선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그럴수록 두 변수의 관계를 더 잘 대변하는 직선인 것이다 [→ 밑의 그림에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직선이 그러하다].



문단 9 클라이버의 법칙

1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0.75}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 직선의 기울기가 0.75라면 1보다 작으므로, 체중의 증가율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보다 크겠다[문단6].

▶ 초기 연구에서는 체표 면적, 즉 (체중)^{0.67}이 기초 대사량에 비례한다고 보았지만, (체중)^{0.67}은 '클라이버'에 의해 (체중)^{0.75}으로 수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주목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 '기초 대사량'이 무엇에 비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표현한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n이라 할 때, '(체중)ⁿ'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

▶ 더 나아가 이런 이해도 가능하다[문단6].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과 같다면, 체중의 증가율은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과 같다. 이 경우에는 '(체중)'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

2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 하며, (체중)^{0.75}을 '대사 체중'이라 부른다. 대사 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글을 마무리하는 설명이다. 결국 '체중'이 아닌 '대사 체중'→ (체중)^{0.75}이 기초 대사량에 비례하며, 이는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 주요하게 사용된다.

어휘 다지기

- * 공복: 배 속이 비어 있는 상태.
- * 발산: 냄새, 빛, 열 따위가 사방으로 퍼져 나감.
- * 체표: 몸의 표면.
- * 변수: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
- * 형질: 동식물의 모양, 크기, 성질 따위의 고유한 특징. 유전하는 것과 유전하지 않는 것이 있다.
- * 절편: 좌표 평면상의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및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절댓값: 실수에서, 양 또는 음의 부호를 떼어 버린 수.

15	세부 정보 추론	정답 ④				
선택률	화작	① 6%	② 34%	③ 19%	④ 30%	⑤ 11%
	언매	① 4%	② 33%	③ 15%	④ 38%	⑤ 10%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 설명

④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판단 경로

- 1) '치료제 허용량'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문단9-2].
- 2)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은 (코끼리의 체중)^{0.75}에 비례하여 정해질 것이다.
- 3) 같은 논리로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은 (생쥐의 체중)^{0.75}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 즉 체중에 비례하여가 아닌, (체중)^{0.75}에 비례하여 허용량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 4) 그렇다면 코끼리에게 적용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생쥐의 허용량은 '(체중)^{0.75}에 비례하여 정한 생쥐의 허용량보다 적을 것이다. 즉 오히려 '과소 복용'이 될 수 있겠다.
-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최적 경로

이 글의 핵심은 '기초 대사량'이 무엇에 비례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즉 '체중'과 '(체중)ⁿ'이 별개임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했다면 '대사 체중'이 체중이 아니라 (체중)^{0.75}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테고, 해당 선지를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로 이탈

치료제의 허용량은 '체중'→ (체중)ⁿ이 아닌 '(체중)^{0.75}에 비례한다. 이때 1이 0.75보다 크므로 '과다 복용'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판단하는 순서가 꼬인 것이다. 결국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구하는 올바른 과정은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생쥐의 체중)^{0.75}으로 나누는 것이다[문단3-2]. 그런데 이를 (생쥐의 체중)으로 나누다면, 더 큰 값으로 나누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허용량보다 작은 값이 될 테니, '과소 복용'이 되는 것이다.

× 오답 설명

①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판단 경로

- 1)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의 60~75%를 차지한다[문단1]. 즉 대사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판단 경로

- 1) '클라이버'의 결론은 기초 대사량이 (체중)^{0.75}→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는 것이다[문단9-1].
- 2) '체표 면적'은 (체중)^{0.75}이 아닌, (체중)^{0.67}에 비례한다[문단3-1].
- 3) 즉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최적 경로 결국 '클라이버의 결론'은 기초 대사량이 체표 면적이 비례한다는 '초기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마지막 문단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로 이탈 '기초 대사량'이 (체중)^{0.75}에 비례하므로,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글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체중이 아닌 (체중)^{0.67}에 비례한다'라고 하였듯이[문단3-1], (체중)^{0.75}에 비례한다고 해서,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판단 경로

1)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기초 대사량'이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즉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체중)^{0.67}의 증가율과 같다고 보았다[문단3].

- 체중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 일정한 비를 갖지 않음
∴ '체중'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하지 않음
- (체중)^{0.67}의 증가율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 일정한 비를 가짐
∴ '(체중)^{0.67}'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함

- 2) '체중의 증가율'보다 '(체중)^{0.67}의 증가율'이 당연히 작을 것이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판단 경로

- 1) '클라이버의 법칙'은 기초 대사량이 (체중)^{0.75}[→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는 것이다[문단9-1].
2) 즉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 [→ 기초 대사량]은 (체중)^{0.75}에 비례한다.
3) 이는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인 (체중)^{0.67}보다 많다.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고난도

17	지문의 개념을 <보기> 사례에 적용					정답 ①
선택률	화작	① 15%	② 22%	③ 29%	④ 23%	⑤ 11%
	언매	① 19%	② 17%	③ 31%	④ 19%	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경로 설계 <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특별히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사실상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가 지문에서는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었다면, 여기서는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활용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판단하면 되겠다.

<보 기>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농계의 ㉠ 게딱지 폭을 이용해 ㉡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 이렇게 구한 'L-그래프'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문단9-1].

④, ⑥의 순서쌍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표현한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n이라 할 때, ㉠에 ㉡가 비례한다.

○ 정답 설명

①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판단 경로

1) L-그래프에서 구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의 증가율에 비해 ㉡의 증가율이 작다는 뜻이 된다[문단6].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1과 같다	1보다 크다
㉠의 증가율 > ㉡의 증가율	㉠의 증가율 = ㉡의 증가율	㉠의 증가율 < ㉡의 증가율

- 2) 이때 ㉠에 ㉡가 비례한다고 하려면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아야 한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과 같아야 하는 것이다.
3) 즉 ㉠과 ㉡는 증가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례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경로 이탈 이는 지문의 설명과 관련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은 '(체중)^{0.75}에 비례한다. 이는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 0.75였기 때문이다[문단9-1]. 이때 '(체중)^{0.75}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하는 것이지, '체중'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체중'과 '(체중)^{0.75}'은 별개이다.], 마찬가지로,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오답 설명

②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㉔와 ㉕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 합은 더 작겠군.

판단 경로

- 1) ㉔와 ㉕의 증가율을 비교하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얻어야 한다[문단5-2].
- 2) 이때 최적의 직선은 '최소 제곱법'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순서쌍을 나타낸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댓값으로부터, '편차 제곱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다[문단8].
- 3)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편차 제곱 합'은 더 커질 것이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㉔의 증가율보다 ㉕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판단 경로

- 1) ㉔의 증가율보다 ㉕의 증가율이 크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게 나타난다[문단6].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1과 같다	1보다 크다
㉔의 증가율 > ㉕의 증가율	㉔의 증가율 = ㉕의 증가율	㉔의 증가율 < ㉕의 증가율

- 2) 다만 L-그래프에서 점들의 분포는 그와 무관하게, 항상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문단5-2].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최적 경로

㉔의 증가율과 ㉕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은 L-그래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문단5-2]. 즉 이때의 점들은 '순서쌍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한 새로운 순서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항상 곡선이 아닌 직선 주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㉔의 증가율보다 ㉕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군.

판단 경로

- 1) ㉔의 증가율보다 ㉕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게 나타난다[문단6].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1과 같다	1보다 크다
㉔의 증가율 > ㉕의 증가율	㉔의 증가율 = ㉕의 증가율	㉔의 증가율 < ㉕의 증가율

-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㉔의 증가율과 ㉕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판단 경로

- 1) ㉔의 증가율과 ㉕의 증가율이 같으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에 해당하는 점들은 직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문단5-1].

• ㉔의 증가율 = ㉕의 증가율[→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음]
⇒ 일정한 비를 가짐
∴ ㉔에 ㉕가 비례함
⇒ 그래프에서 순서쌍이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함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최적 경로

이는 결과적으로 이 글의 마지막에서 도달해야 하는 이해와도 닿아 있다[문단9].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과 같다면, ㉔의 증가율은 ㉕의 증가율과 같다. 이 경우에는 ㉔에 ㉕가 비례한다.

이감이 만들면 기출문제집도 다릅니다!



꼭 학습해야 하는 국어 기출문제,
이감이 제대로 된 기출 학습법을 제공합니다.

01. 출제 경향

- 총평

쉬웠다. 예년에 비해 출제된 작품들도 쉬운 편이었고, <보기>의 난도도 낮았다. 특별히 낮은 문항 유형이나 함정도 없었으며, 까다로운 경쟁 선지도 드물었다. 전체적 완성도 역시 다소 낮은 편이었다. 특히 산문 갈래 지문의 서사적 특성이 희미하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일부 <보기>의 내용은 문학 이론과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표현도 세련되지 못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EBS 연계 학습을 전제로 한 지문과 문항들이 다수 배치되어서, 연계 학습의 중요성만은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 출제 작품

세부 영역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고전소설	4	조위환, 「최척전」	수능특강 258쪽 (지문 후반부가 수능특강 수록 부분과 겹침.)
고전시가 + 수필	5	이황, 「도산십이곡」	수능특강 309쪽 (출제된 제1, 2, 6수 중 제1수와 제2수가 수능특강 수록 부분과 겹침.)
		김득연, 「지수정가」	비연계
		김훈, 「겸재의 빛」	비연계
현대소설	4	최명희, 「쓰러지는 빛」	비연계
현대시	4	유치환, 「채전」	비연계
		나희덕, 「음지의 꽃」	수능완성 170쪽

● 연계 평가

- 전체 7작품 중 4작품이 비연계이지만, 나머지 3작품의 EBS 연계 정도가 강한 편이고, 비연계 작품들도 내용상 EBS 수록 작품들과의 관련성이 높은 편이다. 평가원이 목표로 하는 연계율 50% 방침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 그다지 낮지 않았을 것이다. 연계 작품 중 수능특강에서 2작품이, 수능완성에서 1작품이 출제되었고 예년과 달리 작가 연계 작품은 없었다.
- 산문 갈래의 경우 고전 소설은 연계로, 현대 소설은 비연계로 출제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었고, 이 방식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갈래의 경우에는 연계 1작품과 비연계 1작품을 짝 지어 출제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었고, 이 방식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도 극 대신 수필이 출제되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전 시가와 수필이, 9월 모의평가에서는 현대시와 수필이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수능에서는 6월 모의평가와 같이 고전 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이 출제되었다.
-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은 9월 모의평가보다 6월 모의평가와의 유사성이 큰 시험이라 할 수 있다.

02. 작품 분석

[18~21] (고전소설) 조위한, 「최척전」

주목해야 할 작품 (2023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

- 가장 쉬운 편이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고전 문학 독해를 어려워하지만, 이 지문의 경우 많은 수험생들이 서사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최척전」은 한문 소설을 현대어로 번역한 작품이라 딱히 어려운 표현이 없고, 또 등장인물이나 갈등 관계가 복잡하지도 않다. 더구나 출제된 지문의 중략 이후 부분은 올해 EBS 수능특강 수록 지문과도 겹치고,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문과도 겹쳐서, 수험생들은 강한 기시감을 느꼈을 것이다.
- 지문의 중략 전에 나오는 ‘시(절구)’의 내용이 중략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인데, 그러한 서사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지문이 제시되어서 매우 아쉽다. 지문 분량의 압박과 기출과의 중복성 문제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 문항들도 매우 평이했다. 20번 문항의 경우, 문제로 주어진 지점들이 딱히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 시간적 표지라고 보기 어려워서 다소 억지스럽다는 인상이 든다. 작품 내용이 쉽고 지문 분량도 짧는데 4문항을 출제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출제한 듯하다. 다만 문제 수준에 비해 풀이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을 것이다. 21번 <보기> 문항의 경우, 이 소설의 전체 서사 측면에서는 혼사 장애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 이산 등의 문제 상황이 이어지는 구조가 맞지만, 주어진 지문에 이 구조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작품의 서사 구조에서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을 문제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체 <보기> 내용의 흐름도 논리적 연결로 승화되지 못한 채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서, 선지 역시 그 나열된 정보를 끼워 맞춰 나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26] (고전시가·수필) (가) 이항, 「도산십이곡」 / (나) 김득연, 「지수정가」 / (다) 김훈, 「겸재의 빛」

주목해야 할 작품 (2023학년도 대수능 대비) : 이항, 「도산십이곡」 중요도 AA

- 6월 모의평가와 같은 구성이지만, 6월 모의평가와 달리 6문항이 아니라 5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가), (나), (다) 세 작품의 내용적 연결성이 탁월한 조합인데, 문항 구성에서는 그 탁월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 이항의 「도산십이곡」은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다. 올해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거듭 출제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다. 이처럼 고전 시가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 중요 작품들은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 김득연의 「지수정가」는 낯선 비연계 작품이지만, 내용과 표현 면에서 올해 EBS 교재에 수록된 여러 고전 시가 작품들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작품이다. 매년 이감에서는 EBS 수록 작품들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출제 가능한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데, 올해도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서 이미 이 작품을 출제한 바 있다. 작품에 대한 적중뿐만 아니라 <보기>의 논지도 일치했기 때문에, 해당 회차를 풀어 본 수험생들은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 수필의 경우,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소설가 공선옥의 작품이 출제되었는데, 수능에서는 소설가 김훈의 작품이 출제되었다. 원래 김훈의 수필 작품들은 밀도가 높고 독해 난도도 높은 편이며, 이번 출제 작품도 그러하다. 겸재의 작품에 나타나는 풍경의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라는 논지의 글인데, 수록 지문의 분량이 지나치게 짧아서 지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넘어간 수험생은 드물었을 것이다. 겸재의 화풍과 작품 세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지문과 <보기>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난도가 높지 않아서 문제 풀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24번 문항은 <보기>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쉽게 정답이 도출되어 아쉬웠다. 최근 평가원은 고전 시가에서, 특히 EBS 연계 작품에서는 어휘 풀이를 거의 주지 않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천석고황’은 기본적인 어휘이므로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25번 문항은 문학 오답률 1, 2위를 다투는 문항이다. 정답 선지의 전반부는 매우 추상도가 높은 반면 후반부는 지문을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처럼 선지 표현의 추상도에 큰 차이가 있어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경우 학생들은 해당 선지가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오답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6번 문항의 <보기>는 문학 개념을 다룬 것도 아니고 작품 이해를 위한 정보를 제시한 것도 아닌, 작품의 소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학 외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낯선 느낌이 든다.

❁ 정답 설명 : ㉓

- 1) (나)의 화자는 ㉑이 ‘어떤 집인가’ 생각하며 ㉒을 ‘남양의 제갈려’와 ‘무이의 와룡암’과 같이 옛 현인들이 은거한 거처와 견주어 ‘무릉도원’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화자가 ㉑에서 만족하며 머무는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 (다)의 글쓴이는 ‘무의미한 흠더미’만 남아 있는 ㉒에서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에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오답 설명

- ① ㉑은 ‘띠 풀로 지붕’을 이어 만든 인공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㉒은 글쓴이가 겸재의 화폭에 담긴 ‘동해 승경’을 따라 다니며 가게 된 장소이므로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라고 볼 수 없다.
- ② ㉑은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㉒은 ‘도로 공사’로 인해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고 ‘시멘트 칠갑이 되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㉑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의 글쓴이는 ㉒에서 겸재의 회화 기법을 생각하고 있다. ㉑과 ㉒ 모두 유용성의 상실과는 거리가 멀다.
- ⑤ (나)의 화자는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 속에서 ㉑에 머물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있는 화자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의 글쓴이는 ㉒에서 겸재의 그림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27~30] (현대소설) 최명희, 「쓰러지는 빛」

- 대하 소설 「혼불」로 유명한 소설가 최명희의 등단작으로서, 1980년 신춘문예에 당선된 자전적 단편 소설이다. 「혼불」은 EBS 교재에 몇 번 수록된 적이 있지만, 이 작품은 매우 낮은 비연계 작품인 셈이다. 올해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5」에 비하면 훨씬 독해하기 편한 작품이다. 문항 구성도 평이했고 풀이 과정도 쉬운 편이다.
- 제시된 지문은 가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을 주로 다룬 내용이라 긴 분량에 비해 서사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특히 도입 부분이 길고 느슨한 편이라 소설 지문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다룬 <보기> 내용에 맞춰서 지문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28번 문항의 경우, 지문 전체의 서술상 특징이나 특정한 한 지점의 서술상 특징을 묻던 기존의 유형과 달리 다섯 부분의 개별적인 서술 방식을 묻는 유형인 점이 눈에 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31번 문항의 유형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1~34] (현대시) (가) 유치환, 「채진」 / (나) 나희덕, 「음지의 꽃」

주목해야 할 작품 (2023학년도 대수능 대비) : 나희덕, 「음지의 꽃」 중요도 B

- 비연계 작품인 (가)보다 연계 작품인 (나)의 난도가 높았다. (가)는 작년 수능 비연계 작품인 이육사의 「초가」에 비하면 쉽게 읽히는 작품이었지만 문항 구성은 최근 기출의 수준과 밀도를 유지한 편이다.
- 원래 현대시의 경우 (가)는 옛 세대 시인의 작품을, (나)는 최근 세대 시인의 작품을 배치하는 편이며, 올해도 평가원은 그 방식을 충실하게 따랐다. 유치환의 작품은 2019학년도에 「출생기」가 출제된 후 4년 만에 다시 출제되었다.
- (나) 작품을 분석하는 33번 문항이 25번 문항과 함께 오답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 선지의 복잡함이 높아 풀이 시간이 꽤 걸리지만, 집중도만 유지한다면 정답은 다소 쉽게 도출된다. 34번 문항의 경우, <보기> 내용이 평범해 보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작품을 충실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좋은 안내 역할을 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33번

❁ 정답 설명 : ②

- 1) [B]에서는 ‘바람’이 참나무를 흔들고, 이로 인해 [C]에서 ‘잠자던 흄씨들’이 일어나 참나무에 ‘버섯이 피어’나게 된다.
- 2) 이처럼 [B]에서부터 [C]까지 ‘참나무를 흔들 → [흄씨들이] 일어남 → [버섯이] 피어남’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고려하면,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 흔들]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설명

- ① 순환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A]에서 벌목으로 썩어 가는 참나무가 [B]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그것이 다시 썩어 가는 모습이 그려져야 한다. 그러나 [A]와 [B]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나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이 [D]에서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생명의 생성이 고통을 멈추게 하고 있으므로,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이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D]에서 썩어 가는 참나무에 버섯이 ‘후드득 피어나’는 모습은 참나무에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은 버섯과 달리 참나무를 덮어 주지 못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낙엽이나 바람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버섯과 달리 참나무를 덮어 주지 못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보기> 설명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가)와 (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두 작품에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 대한 차이와 동질성을 설명하고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을 주목하자.

공통 제재 : 생명 현상	
(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 •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 →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의 변화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

❁ 정답 설명 : ③

- (가)의 ‘년출’은 그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풍경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그러나 ‘년출’이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나)의 ‘홀씨’는 ‘패역의 골짜기’[→ 황폐화된 현실]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 존재들이지,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홀씨’는 함께 피어남으로써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설명

- (가)는 ‘한여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채전’에서 여러 채소들이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어 가며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나)의 ‘겨울’은 ‘별목’으로 ‘씩어 가는 참나무 떼’가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나기까지 ‘서로에게 기댄 채’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고 있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 <보기>에 따르면 (가)의 ‘올타리’는 ‘범속한 것들’이 ‘화합’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채전’을 드러내는 경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골짜기’는 ‘별목’으로 인해 ‘씩어 가는 참나무 떼’가 있는 곳으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황폐화된 현실을 보여 주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 (가)에서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 시 나’는 것은 ‘채전’의 생명들이 자랄 수 있는 ‘극진한 축복과 은혜’가 되어 주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그늘’은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비’, ‘햇볕’ 등과 함께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씩어 가는 참나무’에 피어난 ‘버섯’을 ‘음지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버섯’이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극복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가)의 ‘비’는 ‘나비’, ‘풍뎅이’, ‘잠자리’, ‘바람’, ‘그늘’ 등과 함께 ‘채전’에서 자라는 ‘범속한 것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로 그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우게 갖게 하는 표상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소나기’는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을 빗댄 것으로서, 이는 황폐화된 현실에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총평

- 올해 수능의 ‘화법과 작문’은 대체로 평이했다.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작년 수능보다 쉬웠으며 올해 치러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 지문의 분량도 길지 않고 정보의 밀도도 높지 않은 데다, ‘화법’, ‘작문-화법 통합’, ‘작문’의 3개 세트 모두 정보 전달 글로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 출제 형식은 ‘화법’ 3문항, ‘작문-화법 통합’ 5문항, ‘작문’ 3문항이라는 기존의 경향이 유지되었다. 이는 ‘화법과 작문’이 선택과목이 된 지난해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구성이다. 화법(35~37번)에서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 이어 또다시 ‘발표’가 출제되었는데, ‘발표’는 평가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작문-화법 통합(38~42번)에서는 ‘학생이 마을 소식지에 쓴 후기(수기)-학생들의 대화’가 출제되었는데, 글이 제시되고 학생들이 대화(회의, 토의)를 나누거나 학생들이 대화(회의, 토의)를 나누고 글을 작성하는 세트 구성 또한 지속적으로 출제되던 것이다. 작문(43~45번)은 학생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작성하는 구성인데, 이 역시 작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서 출제 형식으로 인한 낯섦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의 수능과 모의평가에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화법에서의 ‘발표’나 작문-화법 통합에서의 ‘대화’, 작문에서의 ‘정보 전달 글쓰기’에 대한 내용과 선지 구성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 EBS 교재와의 연계는 수능특강에서 다룬 ‘학교 나무 생태 지도’라는 주제가 작문-화법 통합에서 ‘식물 지도’로 출제되었다. 최근 몇 년간 ‘화법과 작문’에서의 EBS 연계는 연계라는 말을 붙이기 무색할 정도로 EBS 교재에 등장한 소재를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수능에는 주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EBS 50% 연계라는 출제 기초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7] 화법(발표) 도로의 안전 설계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발표’가 또다시 출제되었다. 심지어 ‘발표’는 작년 수능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 네 번 연속 출제되었다. 문항 구성 역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35번), 시각 자료 활용(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 세트에서 항상 등장하는 구성이었다. 이렇듯 ‘발표’는 화법 세트에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으므로, ‘발표’에 대한 이해와 이를 구성하는 문항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 올해는 지문과 문항 모두 평이한 수준이었기에 수험생들이 세 문항 모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38~42] 작문-화법 통합(수기-대화) 생태 지도 제작

- 학생이 쓴 '후기(가)'와 이를 읽은 다른 지역 학생들이 나눈 '대화(나)'로 구성된 작문-화법 통합 세트이다. 지금까지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구성이 '대화(회의, 토의)'와 '글쓰기'였으며, 작년 수능부터 올해 수능까지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해당 형식이 작문-화법 통합 세트에서 또다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세트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된다.
- 한편 올해 통합 세트에서는 41번과 42번 문항이 다소 새로웠다고 평가할 만하다. 41번 문항의 경우, (나)의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의 식물 지도 제작 사례 가운데 수용할 점과 달리할 점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점검하게 했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그리고 42번 문항의 경우 통합 세트의 문항에서 지도라는 매체를 생산하게 했다는 점이 특이했는데, 통합 세트에서 매체 생산 <보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나)의 대화 내용이 지도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선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통합 세트의 한 문항에 반드시 나오는 선지] 선지 자체의 새로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난도 문항 해설 40번

❁ 정답 설명 : ③

대화의 특정 부분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올해 수능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나)의 [B]에서 '학생 3'은 '식물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도 제시했으면 하는데'라고 했는데, '학생 3'이 말한 '효용'은 '꽃이나 나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같은 효용'을 의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 1'은 식물이 가진 '약효'로 잘못 이해했다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③번 선지에서는 '서로가 상대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여 '학생 3'도 '학생 1'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③번 선지의 일부는 적절하고 일부는 적절하지 않아서 선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범했을 것이다.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꼼꼼함의 문제로 한 문항을 틀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좀 더 차근차근 선지를 챙겨야겠다.

❁ 오답 설명

- ① [A]에서 '학생 2'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곳'이라는 '학생 1'의 발화를 일부 재진술한 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지도이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더 좋을 듯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식물 지도 만들기를 위한 조사 장소로 '□□ 농장에 갔으면 하는데'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 1'은 '거긴 매실나무만 많'다는 이유로, '학생 2'는 '그 농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2'는 '그거 좋은데?'라고 '학생 3'에게 공감을 표한 후 '우리가 행복산에서 조사할 꽃과 나무 중 일부에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표시하면 되겠다.'라고 하여 '학생 3'의 제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의 첫 번째 발화에서 '학생 3'은 '너희 생각은 어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여 자신이 제안한 바에 대한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묻고 있다.

❁ 정답 설명 : ②

(나)의 진행 목적이 (가)에 나타난 ‘○○ 고등학교의 사례에서 어떤 점을 수용하고 어떤 점을 달리할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고, 이 논의가 반영된 ‘회의록’의 내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이었다. 이 문항이 ‘화법과 작문’에서 40번 문항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았는데, 문항 자체의 난도는 결코 높지 않았다. (가)에서 ○○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대한 여러 종류의 식물 사진을 찍’고, ‘학급마다 특색 있게 그린 지도 위에 조사한 모든 식물의 이름을 표시’했다. 이 사례를 보고 (나)에서 ‘학생 1’은 ‘우리도 지도에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표시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학생 2’는 ‘발표회까지 얼마 안 남아서 국가 보호종을 비롯해 주목할 만한 몇몇 식물만 표시해야 할 듯해’라고 답하고 있고, ‘학생 1’이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우리도 몇몇 주목할 식물만 지도에 표시한다’는 내용이 ‘회의록’의 ‘수용할 점’에 위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가)에서 ‘식물의 이름을 알려 주는 누리집을 이용해 식물 이름을 편리하게 찾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학생 2’는 ‘식물 이름은 ○○ 고등학교처럼 누리집을 이용해 편리하게 찾자’고 제안했다.
- ③ (가)에서 ‘식물 지도 만들기는 △△동 전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에서 ‘학생 2’는 ‘우리 셋이서 ○○ 고등학교가 한 것처럼 넓은 공간을 조사하긴 힘들 듯하니 학교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만 지도의 범위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학생 1’이 이에 동의했다.
- ④ (가)에서는 ‘평소 우리가 잘 모르던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식물을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에서 ‘학생 2’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지도이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더 좋을 듯해’라고 이야기하고 ‘학생 3’이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라고 동의했다.
- ⑤ (가)에서는 ‘학급별로 만든 지도를 이어 붙여 100여 종의 식물이 표시된 △△동 식물 지도를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학생 2’는 ‘○○ 고등학교가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지도를 만든 건 참신하긴 한데 통일감이 없어 부자연스러울 듯해.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모아 함께 지도를 그리자.’라고 제안하였고, ‘학생 3’이 이에 동의했다.

[43~45] 작문(정보 전달 글) 커피박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작문 세트에 자주 출제되는 형식인 ‘학생의 생각이 초고에 반영된 내용(43번), 마지막 문단 쓰기(44번), 자료 활용(45번)’으로 구성되었다. 통상 작문 세트에서는 ‘자료 활용’ 문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9월 모의평가처럼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활용’ 문항이 쉽게 출제되었다. 때문에 수험생들이 작문 세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 자료의 분량 자체도 적은 데다 항상 등장하던 통계 수치마저 없어서 통계를 해석해야 하는 부담마저 없었다. 그리고 44번 문항에서도 문단 쓰기를 위한 조언이 적절히 반영된 경쟁 선지가 몇 개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선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쉬웠다.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01. 언어

● 총평

언어는 형태론, 의미론, 국어사, 음운론(표준 발음법), 통사론 영역에서 고루 출제되었다. 기존의 출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교육 과정 내에서 익숙하게 다뤘던 개념 위주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세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있어 난도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적 개념을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꼼꼼하게 따져 답을 골라야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6] 형태론 + 의미론

형태론과 의미론을 융합한 지문으로, 직접 구성 요소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익숙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개별 용례를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느냐가 정답 판별의 핵심 요소였다. 여러 요소로 구성된 복합어의 형태소 분석 및 의미 파악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35번

❁ 문항 설명

합성 명사의 구성과 합성 명사를 이루는 형태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및 형태소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학습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어근뿐만 아니라 접사를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느냐가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정답 설명 : ㉡

㉠ ‘집안싸움’은 직접 구성 요소 ‘집안’과 ‘싸움’으로 분석되며, 각각의 요소는 ‘집+안’, ‘싸우-+-ㅁ’으로 분석된다. ㉡ ‘논밭갈이’는 직접 구성 요소 ‘논밭’과 ‘갈이’로 분석되며, 각각의 요소는 ‘논+밭’, ‘갈-+-이’로 분석된다. 따라서 ㉠과 ㉡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어근 세 개와 접사 한 개로 분석되므로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에 해당한다.

❁ 오답 설명

㉢ ‘새우볶음’은 직접 구성 요소 ‘새우’와 ‘볶음’으로 분석되며, 각 요소는 ‘새우’, ‘볶-+-음’로 분석된다.

㉣ ‘탈춤놀이’는 직접 구성 요소 ‘탈춤’과 ‘놀이’로 분석되며, 각 요소는 ‘탈+추-+-ㅁ’, ‘놀-+-이’로 분석된다.

[37] 국어사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나 제시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야 했을 것이다.

[38] 음운론(표준 발음법)

된소리되기와 관련된 표준 발음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해하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 체언, 어미, 접사 등 다양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했으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됐을 것이다.

[39] 통사론

문장 성분 및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꾸준히 다루어진 개념과 유형이므로 그 형식은 익숙했을 것이지만, 문장에서 안긴문장의 기능과 생략된 성분 등을 세심하게 따져 파악해야 했으므로 다소 까다로웠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39번

❖ 문항 설명

안긴문장의 종류, 기능, 생략된 성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각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안긴문장의 종류와 역할이라는 기본적인 학습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정답 설명: ①

㉠의 안긴문장 ‘내 친구가 보낸’에는 서술어 ‘보내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의 안긴문장 ‘테니스 배우기’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오답 설명

- ② ㉠에서 명사절[→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은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에서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에서 ‘식당이’가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안긴문장인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은 ‘식당’을 수식하는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을 확인할 수 없다. ㉢에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나타나 있다.

02. 매체

● 총평

- 올해 수능의 매체는 대체로 평이했으며 올해 치러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출제 형식은 ‘매체-언어 통합’ 4문항, ‘매체’ 2문항으로 작년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올해 9월 모의평가의 경우 ‘매체-언어 통합’ 3문항과 ‘매체’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매체(44~45번)의 출제 형식은 세트의 문항 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출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올해 수능의 매체 세트에서는 올드 미디어로 분류되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등을 다루지 않았고, 누리집, 화상 회의, 온라인 카페 등의 뉴 미디어만을 다루었으며, 매체 세트의 내용으로 ‘1인 미디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험생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제시하고, 이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용할 때의 유의 사항들을 짚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매체 세트에서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함께 다루어 그 균형을 맞췄는데, 평가원이 앞으로는 그런 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한 듯하다.
- EBS 교재와의 연계는 수능완성에서 <보기>로 다룬 ‘1인 미디어의 실시간 방송’에 대한 내용이 ‘매체(44-45번)’의 ‘1인 미디어 방송 비평’으로 일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한편 EBS 교재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뉴 미디어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만큼, EBS 교재를 통해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40~43] 매체-언어 통합(누리집-화상 회의)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제작

‘누리집’이라는 매체와 ‘온라인 화상 채팅(회의)’이라는 매체가 처음으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출제되는 매체만 새로울 뿐 출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는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통상 출제되던 ‘매체의 특성(40번), 매체 언어의 표현(41번), 매체의 활용(42번), 매체의 생산(43번)’ 등이 출제되었다. 지문과 문항 모두 평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문항 해설 40번

✱ 문항 설명

공식 누리집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었다. 공식 누리집은 수험생들이 흔하게 접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해당 누리집에 담긴 정보들 역시 많지 않은 데다 담긴 내용도 평이한 수준이어서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 정답 설명 : ②

○○○ 공식 누리집인 (가)의 아래쪽에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즉 누리집의 특정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②번 선지에서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가)의 하단에서는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박◇◇’가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댓글로 ‘기부금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라고 해당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 ③ (가)의 왼쪽 하단에서는 ‘민원 서비스 메뉴’인 ‘증명서 발급’과 ‘주요 행정 서식’ 메뉴가 제공되고 있다.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나 행정 서식이 필요한 주민들은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증명서나 행정 서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 ④ (가)의 상단에는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군’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산, 강, 새 등의 풍경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집 상단에 홍보 문구와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이 부각하고자 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 ⑤ (가)의 오른쪽 하단에는 ‘○○군으로 놀러 오세요’라는 메뉴에 ‘두루미 생태 공원 동영상’과 ‘국화 축제 동영상’ 등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44~45] 매체(온라인 카페 화면) 1인 미디어 방송 비평

‘온라인 카페’라는 매체가 처음으로 출제되었고 44번 문항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온라인 카페 활동 시의 규칙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매체의 특성’과 ‘매체 활용’, ‘매체 윤리’까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45번 문항은 ‘매체의 비판적 수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매체 세트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던 문항 형식과 유사해 수험생들에게 익숙했을 것이다. ‘온라인 카페’라는 매체 틀 안에 ‘1인 미디어 비평’이라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매체 윤리를 다시금 일깨우는 내용이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1인 미디어(유튜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수능 출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매체’ 교과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III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조언

01. 선부른 난이도 예측은 금물이다.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지만, 때로는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쉽게 출제되면 크게 문제 될 것 없지만, 쉬울 것 예상했다가 어렵게 출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볼 수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좀 더 강도 높게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를 틀리면 위안 삼아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라며 문제를 부정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 가지 출제 가능성을 열어 놓는 유연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02. 독서 영역에서 실력을 충분히 함양할 필요가 있다.

올해 수능도 그렇듯이, 최근 수능에서 독서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서 난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 영역에서 굳건한 실력을 길러 놓아야 80분의 국어 시험 운용이 순조로울 수 있음을 명심하자.

독서는 지문 읽기와 문제 풀이 중에 지문 읽기 능력이 더 중요한 영역이다. 지문을 잘 읽고도 문제를 틀리는 경우보다는 지문을 잘못 읽거나 불확실하게 읽어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독서에서 강해지기 위해, 수능에 출제될 만한 제재가 담긴 지문을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능에 나올 킬러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량이 많은 지문, 이해가 어려운 지문, 불친절한 지문 등 다양한 지문에 자신을 노출시켜 실력을 끌어올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독서 영역은 지문의 구조, 제재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수능에 출제될 것이므로 특정 경향에만 익숙해지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출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03. 문학 영역은 EBS 연계 지문과 비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 출제 비율이 50%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문학은 연계 작품에 대한 대비와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한다. EBS 연계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수능에 출제될 만한 EBS 작품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학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장르별로 작품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익힌 후에는 실전 문제를 통해 낯선 작품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시의 경우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 대상의 특성, 화자의 정서·태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인물의 심리,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작품에 대한 독해 못지않게 선택지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도 중요해졌다. 최근 문학의 선택지들이 내용의 밀도가 높아지자 수험생들이 선택지를 주관적으로 읽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기출 문제에 등장하는 선택지의 표현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작품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익혀 두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시험지로 훈련을 하는 것도 요긴하다.

04.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선택은 신중히 하되, 선택 후에는 공부에 매진하자.

선택과목은 수험 생활 내내 과목 선택을 고민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선택과목의 보정 절차를 만들어 특별히 어느 쪽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한 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하지 않고 수능 직전까지 유리한 과목만 찾아다니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

참고로, 화법과 작문은 개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적은 대신 꾸준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언어와 매체는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해 두면 유리한 대신 구체적인 용례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IV

수능과 이감의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인문 통합 [4~9]	중국과 조선의 '유서'와 서학의 수용	비연계	-
사회 [10~13]	민사와 행정 작용에서의 불확정 개념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수능완성 137쪽 (이감 중요도 AA)	2022 이감 시즌5 7차 2022 이감 ON 10차 2022 간쓸개 시즌6 10차 2022 이감 스페셜 리뷰 / 간쓸개S 법
과학 [14~17]	기초 대사량과 최소 제공법	수능특강 289쪽 (이감 중요도 AA)	2022 이감 시즌6 9차

문학

세부 영역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조위한, 「최척전」	수능특강 258쪽 (이감 중요도 A)	2022 간쓸개 시즌3 5차 2022 간쓸개 시즌5 5차 2022 간쓸개 시즌6 6차 2022 파이널 간쓸개 II 2022 이감 스타트 문학 2022 이감 히든 N제
고전시가 + 수필 [22~26]	(가) 이항, 「도산십이곡」 (나) 김득연, 「지수정가」 (다) 김훈, 「겸재의 빛」	수능특강 309쪽 (이감 중요도 AA) 비연계 비연계	2022 이감 시즌4 1차 2022 이감 시즌5 3차 2022 이감 시즌6 9차 2022 이감 ON 4차 2022 타임 어택 1차 2022 간쓸개 시즌4 1차 2022 간쓸개 시즌5 3차 2022 간쓸개 시즌6 7차 2022 간쓸개 에센셜 03 2022 파이널 간쓸개 II
현대소설 [27~30]	최명희, 「쓰러지는 빛」	비연계	-
현대시 [31~34]	(가) 유치환, 「채전」 (나) 나희덕, 「음지의 꽃」	비연계 수능완성 170쪽 (이감 중요도 B)	2022 이감 시즌5 4차 2022 간쓸개 시즌6 2차 2022 파이널 간쓸개 II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도로의 안전 설계 (발표)	비연계	2022 이감 시즌6 6차 2022 이감 시즌6 10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작문-화법 통합 [38~42]	생태 지도 제작 (수기-대화)	수능특강 41쪽 (생태 지도 제작)	2022 이감 시즌5 3차 2022 이감 시즌6 4차 2022 이감 ON 9차 2022 이감 ON 10차
작문 [43~45]	커피박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정보 전달 글)	수능특강 188쪽 (음식물 쓰레기와 소비 기한)	2022 이감 시즌6 6차 2022 이감 히든 1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형태론 + 의미론 [35~36]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와 의미	수능특강 94쪽 수능완성 180쪽	2022 이감 시즌6 6차 2022 이감 시즌6 8차
국어사 [37]	중세 국어의 표기 원리	비연계	-
음운론 [38]	된소리되기 (표준 발음법 제24항)	수능특강 106쪽	2022 이감 히든 2차
통사론 [39]	문장 성분, 문장 구조	수능특강 97쪽 수능완성 100쪽	2022 이감 시즌6 6차 2022 이감 시즌6 7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매체-언어 통합 [40~43]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제작 (누리집-화상 회의)	비연계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이감 시즌5 4차 2022 이감 시즌5 6차 2022 이감 시즌6 1차
매체 [44~45]	1인 미디어 방송 비평 (온라인 카페 화면)	수능완성 261쪽	2022 이감 시즌5 7차 2022 이감 시즌6 2차

사회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독서

- 수능 지문이 '기속 행위, 재량 행위'에 대해 다루면서 그것이 '행정 관행'이 되었을 때에는 기속 행위와 같은 성격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는데,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었음.
- 또한 행정청의 행정 작용이 항상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수능 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준 5 7차 2022 이감 ON 모의고사 10차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조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㉔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㉕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어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㉖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㉗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㉘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㉙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가)

행정 기관이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행정 행위라 한다. 이는 행정권이라는 권한의 행사여서, 그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행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 ㉚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해 먼저 해당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기속 행위는 행정권 행사의 내용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행위이고, 재량 행위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위이다. 재량권은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이나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㉛ 말한다. 어떤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 것으로 확정 [A] 되면 행사에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법원은 행정 행위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해당 행위가 재량 행위인 것으로 확정되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일탈 또는 남용된 것이 아닌 한, 재량을 그르쳐서, 즉 재량에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도 단지 부당한 것일 뿐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행정 기관이 행정 법규를 집행하는 행위인 행정 행위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로 구분된다. 전자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위로서 행정 기관을 행위 주체로 하여 “~해야 한다.”의 형태로 표현되는 반면, 후자는 행정 기관에 선택권이 부여된 행위로서 “~할 수 있다.”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행정 법규에는 행정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을 행위 주체로 삼아 중립적으로 규정된 행위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현만으로 행정 기관의 입장에서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㉜ 원칙과 ㉝ 규율의 개념 구분을 통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조건하에 하나의 원칙의 우위가 판명되고 나면 그 조건을 포함한 원칙은 규율로 성격이 변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규율과 달리 행정 행위의 근거 규범이 규율인 경우, 행정 기관이 이를 어긴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 형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익과 사익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재량 일탈이나 자의적으로 고려한 재량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이 된다.

사회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독서

- 수능 지문이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대해 다루었다면, 간쓸개 지문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손해 배상'과 '손해 배상액'에 대해 다루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간쓸개 시즌6 10차
2022 간쓸개S 범
2022 이감 스페셜 리뷰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조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㉔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㉕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조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㉖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㉗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㉘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㉙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매매된 미술 작품이 진품이 아니라 위조품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위조품을 판매했다면, 매도인은 민법상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양 당사자 모두 위조품을 진품으로 잘못 알고 거래했다면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매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와 관련된 민법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위조품의 경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인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매 계약에 관련된 규정인 ㉚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하자가 중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상실시켜서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반환하여 원상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매도인은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원시적 불능 상태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가 산정하여 청구하는 신뢰 이익의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시적 불능의 계약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의 한도는 민법 제535조의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손해 배상액은 이행 이익의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㉛ 이행 이익의 손해란 계약이 정상 이행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얻었을 이익을 뜻한다.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황이지만 이행된 상황을 가정하여 손해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단서 조항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상태보다 피해 당사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피해 당사자가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여겨질 때 피해를 유발한 상대방은 배상의 책임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행 이익의 손해액을 직접 산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과학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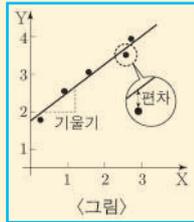
- 수능 지문에서 '기초 대사량'에 대해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 제곱법'을 다루었다면,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해당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30년대에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우선, 그래프에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댓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 합'이며, 편차 제곱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0.75}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 하며, (체중)^{0.75}을 대사 체중이라 부른다. 대사 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9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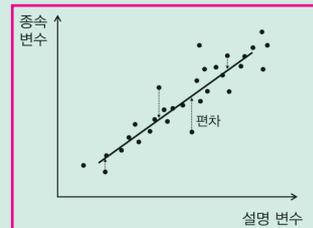
(가)

경제학에서는 각종 수치 자료들을 토대로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회귀 분석을 하곤 한다. 가령 교육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 그러하다. 교육 기간과 같은 설명 변수 x에 따라 임금과 같은 종속 변수 y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조사를 통해 순서쌍 (x, y)를 여러 얻었다면 이들 순서쌍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그 상관관계는 설명 변수를 가로축, 종속 변수를 세로축으로 하는 평면에서 직선으로 나타낼 것이다. 순서쌍들을 토대로 이들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 방법으로 '최소 제곱법'이 있다.

최소 제곱법을 통해 찾고자 하는 것은 'y=ax+b'와 같은 형태의 직선으로, 이는 '기울기'이자 회귀 계수인 a와 세로축 절편인 b를 찾는 것과 같다. a는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으로 상관관계를 보여 주며, b는 직선이 세로축과 만날 때의 y값이다. 순서쌍 (x, y)들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직선을 대략적으로 그렸다고 해 보자. 순서쌍에 대응하는 모든 점들이 직선 위에 놓인다면 그 직선은 점들의 상관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점들 대부분이 직선에서 떨어져 있다. 각 점에서 직선까지의 세로 거리를 '편차'라 하는데, 최소 제곱법은 편차 제곱들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직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기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편차가 가장 큰 점이다.

3) 각 점들에서 직선까지의 세로 거리를 '편차'라 하는데, 최소 제곱법은 편차 제곱들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직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기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편차가 가장 큰 점이다.

▶ '직선까지의 세로 거리'라는 표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떠올리자. 실제로는 점들 대부분이 직선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직선을 그렸을 때 '편차'가 존재하게 된다.



문학

고전소설 | 작품 및 선지 적중

- 조위한의 「최척전」을 공통으로 출제하였고, 수능 지문과 동일한 부분을 다루고 문제화하였음.
- 수능 <보기> 문항과 이감 문항의 판정 지점 및 논지가 상당 부분 일치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간쓸개 3-5, 5-5, 6-6 2022 파이널 간쓸개 II, 이감 스타트 2022 이감 히든 N제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중략 줄거리】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최척은 동방이 밝아 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조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였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

“어머님은 지성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다룰 수 없는 것이 아니요, 이제 만류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까 봐 찬성하였어요. 순순히 따라나서는 것이 좋아요. 제 근심스런 심정이야 오죽하겠어요.”

수일 후였다. 옥영 일행은 배를 띄워 조선을 향해 떠났다.

- 조위한, 「최척전」 -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옥영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네.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갯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

1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 ②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 ③ ‘최척’은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 ④ ‘옥영’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옥영이 시집은 후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 ⑤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옥영의 행실을 칭찬했다.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곤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 절구를 읊었다.

왕자교 통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봉래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옥영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였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갯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
 [A] 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리어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

48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우’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최척’의 귀향을 가로막는 부정적 인물이다.
- ② ‘학천’은 ‘최척’의 안위를 염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는 긍정적 인물이다.
- ③ ‘뱃사람들이’ 비탄에 젖은 것은 ‘최척’의 경우처럼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 ④ ‘돈우’는 ‘최척’과 ‘옥영’의 결연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학천’을 만나 조건을 따지고 있다.
- ⑤ ‘돈우’는 자비로운 인물이지만 ‘최척’과 ‘옥영’에게 이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존재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나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 ①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몽석의 꿈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옥영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옥영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척전」은 당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담아낸 작품이다. 최척의 가족이 전란으로 인해 이산(離散)하여 유랑했던 체험을 담은 이 작품은, 시·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일본, 중국, 만주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현실을 망라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최척 일가를 돕는 각 나라의 다양한 인물들을 호의적인 태도로 함께 그려 내었다. 작가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대해 자민족 중심의 편협함에서 벗어난 긍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02 윗글에 나타난 <조선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척이 일본인들에게 ‘조선말로’ 말을 건 것은 옥영과의 만남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② 최척의 어질픈 ‘조선말’은 그가 고국을 떠나 오랫동안 낯선 나라를 떠돌며 살아왔음을 암시한다.
- ③ 최척이 구사한 ‘조선말’은 몽석이 최척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④ 최척과 몽석이 ‘조선말’로 나는 대화는 오랑캐 노인이 두 사람에게 연민을 품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족 공동체의 시련으로 인한 민중의 이산을 다룬 문학은, 유랑과 귀환의 서사를 통해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기도 하고 현실의 비참함을 더욱 극적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최척전」은 전란의 피해가 심했던 조선 후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합(離合)하는 모습을, 「애니깽」은 구한말 이역의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사실적인 소재와 배경을 활용하여 그려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조국을 떠나 살게 된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주목하는 한편,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강인한 의지와 끈질긴 생명력을 형상화하였다.

- ① (가) :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분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옥영의 말에서, 고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인물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 이항의 「도산십이곡」을 공통으로 출제하였음.
- 수능 <보기> 문항과 이감 모의고사 및 간쓸개 문항의 판정 지점 및 논지가 상당 부분 일치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하랴 <제1수>

[A]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항, 「도산십이곡」 -

2022 이감 모의고사 4-1, 6-9
2022 이감 타임 어택 1차
2022 간쓸개 4-1, 5-3, 6-7
2022 간쓸개 에디션 03, 파일널 간쓸개 II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 초야 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무엇 하랴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춘풍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 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나)
㉠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 초야 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하랴 <제1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 인성(人性)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천하의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속여 말씀할까 <제3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 사시 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A]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 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제6수>

당시에 너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고
㉥ 이제야 돌아오나니 넌 데 마음 말으리 <제10수>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2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제1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A]의 <제2수> 초장은 <제1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B]의 '끌어 들여'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 ③ (가)의 '천석고황'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쿵쿵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강호(江湖)에서의 은일을 노래한 시가들에서 화자는 자기 삶의 공간이자 일상적 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연에서 우주적인 원리를 접하고, 그러한 자연과의 일체감을 지향한다. 이에 반해 산수 기행을 노래한 시가들에는 새로운 풍경에 감탄하는 여행자의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미적 체험이 나타나며, 각각의 풍경들에 대한 감각적 인상이 두드러진다. 『도산십이곡』의 작가는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은거하였고, 『관동별곡』의 작가는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임지를 유람한바, 두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정서 또한 이와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완락재'에 머무는 화자가 '연하로 집을 삼았다고 하는 것에서, 자연을 자기 삶의 공간으로 여기는 은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대부의 강호 시가는 모두 자연을 즐기며 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노래하고 있지만, 각 작품에 드러난 자연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가)의 자연은 도가 구현된 공간으로서, 화자는 성리학적 우주 질서를 함축한 표현을 통해 자연을 나타내는 한편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의 자연은 친근감과 흥취의 대상으로서, 성리학적 우주 질서를 환기하는 표현 역시 실제로 관념적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 ① (가)의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겠느냐는 물음과 (나)의 '산수에 벽이 일어 늙을수록 더욱 하'다는 말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사시 가흥이 사람과 한가지'라는 것이나 (나)에서 '푸른 물과 높은 하늘'이 '한 빛이 되었'다는 것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궁지가 드러난다.

31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제6수>에는 '화만산'하거나 '월만대'한 상황이 자아내는 계절적 감흥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제7수>에는 '소쇄할' 거처에서 학문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문학

- EBS 비연계 작품인 김득연의 「지수정가」를 공통으로 출제하였음.
- 수능 <보기> 문항과 이감 모의고사 문항의 판정 지점 및 논지가 상당 부분 일치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 3차

(나)

산가(山家)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새
십 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굽은 암석은 많고 많다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 파서
활수*를 끌어 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잡혀 있다
천고(千古)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一朝)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처음의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백석은 치치(齒齒)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벽류는 칼칼 흘러 옥 술잔을 매리는 듯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뽕뽕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삼경(三選) 송국죽(松菊竹)은 줄지어 벌여 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승이 용이 되어 구부러 누웠
거늘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떠 풀로 지붕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연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B]

- 김득연, 「지수정가」 -

* 활수: 흐르는 물.

*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

(나)

동풍이 건듯 불어 동방(洞房)에 들어오니
창밖의 찬 매화 이 소식을 먼저 안다
건곤(乾坤)이 화창하여 꽃과 버들 쟁영(爭榮)*하니
풍영단(風咏壇) 방수단(傍隨壇)에 미친 흥이 끝이 없다
용산(龍山)에 비 갠 후에 고사리 손수 꺾어 국으로 끓이니
조석(朝夕)의 음식 맛이 족(足)함도 내 분이로다
천산(千山)에 꽃 다 지고 만목(萬木)에 새잎 나니
녹음(綠陰)이 가득하여 여름날 아주 긴 때
석침(石枕)에 낮잠 깨어 함벽당(涵碧塘)을 굽어보니
그곳에 노는 고기 낚날이 다 새졌네
대숲의 양기(涼氣)* 일어 하엽주(荷葉珠)*를 흘뜨리니
군자의 맑은 성품 여기에서 알리로다
기러기 한 소리에 맑은 서리 물들이니
산색(山色)이 다 변하여 금수(錦繡)*로 꾸몄으니
곡구암(谷口巖) 반타암(盤陀巖)이 그림이 되어 동문(洞門)*
을 잠갔구나
밝은 달이 떠올라서 소나무에 비추거든
거문고 빗기 안고 옥난간에 기댔으니
깃옷 입은 손님네는 다 나를 찾아와 눈에 가득 비는구나
세모(歲暮) 찬 날씨에 온 산에 눈 덮이니
인적은 아주 없고 우는 새도 그친 때에
원근(遠近) 언덕 골짜기는 백옥경(白玉京)* 경요굴(瓊瑤 [C]
窟)*이 되었거늘
울창한 소나무는 혼자서 빼어나 높은 기개 가졌으니
내 마음도 그런 줄을 서로 알아 무고암(撫孤巖)에 서성이니
우리의 후조(後凋)* 맹세야 고칠 줄이 있으랴
아마도 이 정자(亭子) 작지만 다 갖춰네
춘하추동에 설월풍화(雪月風花) 다 가졌으니
무엇을 아니 보며 어느 것을 버리리오

[B]

[C]

- 김득연, 「지수정가(止水亭歌)」 -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 ③ (가)의 '천석고황'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물을 소재로 한 시가에서 자연물이 지니는 구체성의 정도는 작품에 따라 상이하다. 「오우가」의 자연물은 화자에게 현재 감각되는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 해당 자연물 일반이다. 화자는 그것의 속성에 도덕적 의미를 결부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때 자연물은 도덕적 의미를 표상하는 기호의 성격을 띤다. 이와 달리 「지수정가」의 자연물은, 도덕적 의미와 결부되는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작중의 특정한 시·공간에서 화자에게 감각되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사물이다.

- ① (가)의 '구름 빛이 깨끗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는, 화자가 현재 감각 대상인 구체적 사물로서의 '구름'이 아니라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름' 일반의 속성에 대해 진술한 것이군.
- ② (가)는 '눈서리'에도 변함이 없다는 '술'의 속성과 결부되는 도덕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그와 대조되는 의미를 표상하는 기호로서 '꽃'과 '잎'을 활용하고 있군.
- ③ (나)의 '건곤이 화창할 때 피는 '꽃과 버들'은, '쟁영'한다는 진술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결부되고 있지만 표상적 기호가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 내에 존재하는 자연물이겠군.
- ④ (나)에서 '대숲의 양기'는 연못의 '하염주를 흠뜨리'는 구체적 감각의 대상으로 나타나면서, '군자의 맑은 성품'이라는 화자의 도덕적 지향과도 결부되고 있군.
- ⑤ (가)의 '깨끗고도 그칠 새 없'는 '물'은 그와 같은 내면을 가지려 하는 화자의 도덕적 지향을 내비치기 위한 소재이고, (나)의 맑은 물에 '노는 고기'는 화자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여름날'의 흥취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이겠군.

현대시 | 작품 및 선지 적중

- 나희덕의 「음지의 꽃」을 공통으로 출제하였음.
- 수능 <보기> 문항과 이감 모의고사 및 간쓸개 문항의 논지가 상당 부분 일치함.
오답 선지의 설계 및 착안점도 유사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 4차 2022 간쓸개 시즌6 2차 2022 파이널 간쓸개 II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떼, [A]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B]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C]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D]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어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E]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F]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어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 패역: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남.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C]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어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D]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3. [A]~[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필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필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②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나)의 '꿀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되어 있군.
- ③ (가)의 '넋출'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 ⑤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우움을 갖게 하는,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

30.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이며 '이 땅'에 '벌목의 슬픔'으로서 있다고 한 것에서, 존재의 죽음과 관련된 비극적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 ② '참나무'가 '썩어 가는' 중에 그 '몸에 뿔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생겨나는 상황은, 두 존재가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 죽음과 삶의 대결 양상을 보여 줌으로써 시적 긴장을 고조하는군.
- ③ '버섯'을 '황홀한 음지의 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발현하는 존재에 대한 경이감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서서히 썩어 가는' '참나무'에 '버섯'이 '소나기처럼 후드득' 자라나는 모습은, 죽어 가는 존재에서 풍성한 생명력이 출현하는 상황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환기하는 것이겠군.
- ⑤ '낙엽'과 '바람으로도' '덮을' 수 없는 '참나무'의 '몸'을 채우는 버섯의 생명력을 '뿌리 없는' '독기'라고 표현한 것은, 존재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군.

03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벌목'을 당한 참나무들이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은 존재들이 연대하며 시련을 견디는 모습을 환기한다.
- ② [B]에서 '썩어' 가는 참나무에서 '참자던 홀씨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 아픔을 주던 존재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 상황을 환기한다.
- ③ [C]에서 참나무가 '서서히 썩어' 갈 때 버섯이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는 것은, 시련을 겪어 온 존재에게 상황 전환의 계기가 생겨나는 모습을 환기한다.
- ④ [D]에서 '낙엽'과 '바람'이 상처받은 참나무를 '덮을 길 없'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외부로부터 위로나 보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을 환기한다.
- ⑤ [D]에서 버섯이 참나무의 썩어 가는 몸을 '독기로 채우는' 것은, 소외되고 불안정한 존재에게 삶을 지탱할 힘이 발현되는 상황을 환기한다.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생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시에서, 시인은 고통이나 죽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명의 힘을 부각하기도 한다. (가)는 병고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시인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명력의 회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고, (나)는 썩은 나무에 핀 버섯에 주목한 시인이 나무의 입장을 상상하여 시련에 굴하지 않는 생명의 힘을 노래한 작품이다.

도로의 안전 설계 | 문항 유사

- 발표에서 말하기 방식(말하기 계획)이 반영된 부분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어 왔음.
- 발표에서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어 왔음.
- 발표에서 청중의 질문을 유추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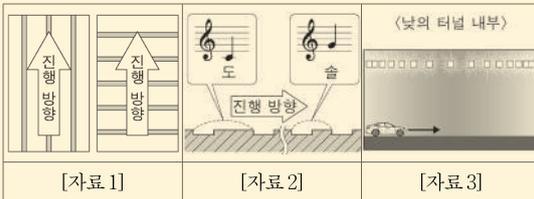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발표에서 다룰 화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과 관련지어 발표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
- ③ 청중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발표 내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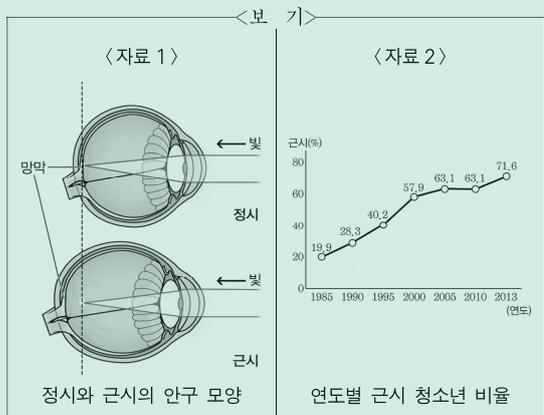
- ① [자료 1]은 흙 사이의 도로면 너비를 달리해서 멜로디를 만든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1]은 살얼음 발생 감소에 효과적인 흙과 제동 거리 단축에 효과적인 흙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2]는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느끼는 차의 진동이 흙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3]은 낮에 터널의 중간 구간이 입구 쪽과 출구 쪽보다 어둡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3]은 달라지는 밝기에 눈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조명등의 설치 간격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6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10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를 들어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37.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 1>은 도파민의 분비 정도에 따른 안구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1>은 정시와 근시의 안구 모양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2>는 야외 활동 시간이 안구 모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2>는 청소년 근시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2>는 햇빛과 근시의 연관성을 알려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곡선 도로에 경사를 준다는 내용을 간략히 제시해서 아쉬워. 도서관에서 그 원리를 알아봐야겠어.

학생 2: 멜로디가 들리는 도로가 재미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안전을 위한 거였군. 이런 도로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학생 3: 미세한 유리 알갱이를 차선에 바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밤에도 터널 구간별로 밝기가 다른지 알고 싶어.

- ① 학생 1은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이 자신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있다.

37.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청자 1: 청구도는 책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하나의 지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구나. 대동여지도가 사용자의 편리성까지 고려한 지도라는 것은 몰랐는데 알게 되어 좋았어.

청자 2: 두 권의 책인 청구도에 비해 대동여지도는 22첩이나 되니 휴대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었겠군. 그런데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기호들이 각각 어떤 장소 정보를 나타낸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 아쉬워.

청자 3: 청구도의 맨 앞에 실렸다는 색인은 무엇을 찾아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걸까? 책에서 대동여지도는 목판을 사용하여 인쇄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용자의 편리성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심해서 만든 지도인 것 같아.

- ① 청자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2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어류에 속하지 않은 갑류에는 어떤 종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어.

학생 2: 조선 시대에 많은 해양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어. 육지 생물에 대해 조사했던 백과사전도 당시에 있었을까?

학생 3: 조선 시대에는 사대부에 비해 어부나 잡수부의 신분 이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기록했다는 것이 흥미로워. 그런데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 외에 『자산어보』에 기록된, 마을 주민만이 아는 현장 지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아 아쉬워.

- ① ‘학생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부족했던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자가 제안한 내용을 실천할 것을 결심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생태 지도 제작 | 문항 유사

- 내용 조직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 수정된 글에서 조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 대화에서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 대화를 통해 만든 결과물에 반영된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 3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4차
2022 이감 ON 모의고사 9차, 10차

38.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식물 지도 만들기 행사에서 자신이 깨달은 점을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② 2문단에서는 식물 지도를 만든 과정을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③ 2문단에서는 학급별 식물 지도의 특색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④ 3문단에서는 식물 조사에 임하는 자신의 참여 자세를 친구들의 참여 자세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⑤ 3문단에서는 식물을 조사하며 친구들이 겪은 어려움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39. <보기>는 (가)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행사를 통해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관찰 활동을 하는 것이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식물 지도 만들기 행사를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① 교실 밖에서 관찰한 대상의 구체적 예를 언급하는 게 어때?
- ② 행사를 통해 자신의 어떤 점을 반성했는지 밝히는 게 어때?
- ③ 다른 학교에서도 행사를 개최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게 어때?
- ④ 교실 밖에서 관찰 활동을 하려면 책을 활용한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때?
- ⑤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관찰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게 어때?

39. (가)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구가 △△동의 노점을 단속하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한다.
- ② 2문단에서는 △△동에 노점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나열하여 제시한다.
- ③ 3문단에서는 노점 단속을 원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각각의 의견을 대조한다.
- ④ 3문단에서는 노점이 운영되는 날 △△동 거리의 풍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⑤ 4문단에서는 노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다른 구의 사례를 제시한다.

42. <보기>는 [A]의 수정 전 내용이다. '학생3이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할 때, 반영한 학생들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처럼 거리 공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거리 공연 문화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또한 거리 공연 문화는 지방 자치 단체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므로 거리 공연에 대한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 ① 글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중복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어때?
- ② 예상 독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③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게 어때?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게 어때?
- ⑤ 글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된 연결 표현을 수정하는 게 어때?

40.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발화를 일부 재진술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1'과 '학생 2'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학생 3'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과 '학생 3' 모두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닫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에게 공감을 표한 후 '학생 3'의 제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의 첫 번째 발화에서 '학생 3'은 자신이 제안한 바에 대한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을 묻고 있다.

42. 다음은 (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만든 지도의 초안이다.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식물이 있는 곳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었군.
- ② ㉡: 국가 보호종 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동선을 표시하기로 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었군.
- ③ ㉢: 식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조사한 식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겠군.
- ④ ㉣: 각 장소마다 하나씩 대표 식물의 사진을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사진을 추가해야겠군.
- ⑤ ㉤: 군집을 이루고 있는 식물 중 학생들에게 낯선 식물은 빗금으로 표시하기로 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었군.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에 대해 회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② ㉡: '가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 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유진'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며 '유진'의 발화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회의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유진'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언급하며 동의 를 표하고 있다.

40. [B]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타버스 학교에 입장하기 위한 준비 사항을 알려 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 시작 시각 이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플랫폼을 알려 준다.
- ② 메타버스 학교에서의 이동 방법을 설명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장소를 클릭하거나 터치하면 그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③ 동아리들이 준비한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 가능한 동아리별 행사의 개수를 소개한다.
- ④ 보물찾기에 대해 설명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물찾기에서 찾은 쪽지에 적힌 상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 ⑤ 동아리 공연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 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상영되는 공연 영상의 순서를 안내한다.

커피박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 지문 및 문항 유사

작문
정보 전달

- 수능 지문의 커피박과 유사한 맥주박, 음식물 쓰레기로 유발되는 문제점과 그의 해결책을 다룬 초고가 제시되고, 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를 다루었음.
- 초고에 반영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 조언을 반영하여 작성한 특정 부분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3~45] 다음은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심이 커피 사랑에만 머물지 않고, 일회용 컵 회수 방안처럼 커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커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논할 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커피를 만든 후 남은 커피 찌꺼기, 바로 커피박(coffee粕)이다. 여러 면에서 커피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우선, 커피박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추출 직후의 커피박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거나 흙에 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처리 방법이다. 배수구에 버린 커피박에서 나온 카페인 성분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완벽히 걸러지지 않은 채 강물에 흘러 들어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흙에 버린 커피박은 토양과 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커피박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커피박은 일상에서 탈취제나 방향제로 이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 합성 목재를 대신하는 재료로 쓰이거나 농업 분야에서 혼합 및 발효 과정을 거쳐 비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끝으로, 커피박 수거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커피박을 그냥 버리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수거 시설이 있어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커피박 수거 시설을 곳곳에 마련한다면, 커피박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A]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6차 2022 이감 히트 1차 2022 화법과 작문 220제

[43~45]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작문 목적: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한 정보 전달
- 주제: '푸드 업사이클링'이 주목받는 이유와 '푸드 업사이클링'의 방식
- 예상 독자: '푸드 업사이클링'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푸드 업사이클링'이란 쓸모없이 버려지는 음식물로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을 만드는 활동을 뜻한다. 최근 이러한 푸드 업사이클링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된다. 그중에는 상품 가치가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많은 양의 식량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식량 자원의 낭비와, 음식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푸드 업사이클링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관대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되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못난이 농산물은 맛과 영양은 일반 농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모양이나 빛깔 면에서 상품성이 낮아 버려지는 작물을 가리킨다. 이를 버리지 않고 가공하여 잼, 피클, 샐러드 등의 식품이나 세제, 화장품, 반려동물 사료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둘째는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푸드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대표적인 부산물로는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리 등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에 해당하는 맥주박이 있다. 맥주박은 깨끗이 씻어 건조시킨 뒤 분쇄하면 고운 가루가 되는데, 이를 밀가루 대신 사용하여 과자, 빵, 피자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커피박이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인지 밝혀야겠어. ㉠
- 커피박이 잘못 버려지고 있는 예를 제시해야겠어. ㉡
- 커피박이 무엇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지 언급해야겠어. ... ㉢
-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평균 대비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겠어. ㉣
- 커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학생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 2~4문단에서 문단별로 문제 삼고 있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언급하고,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지어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 ① 커피에 대한 사랑은 커피박에 관심을 갖는 태도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활용 분야와 수거 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커피 사랑의 시작이다.
- ② 커피박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재활용 분야를 홍보하고, 수거 시설 확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커피박에도 관심을 갖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커피 사랑의 참된 자세이다.
- ③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왜 커피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④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커피박의 바람직한 처리 방법과 재활용 분야를 알리고, 커피박 수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⑤ 커피박 수거 시설의 설치에 시민들에게 커피박의 쓰임새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 사랑할수록 관심을 표현하듯이, 커피에 대한 사랑을 커피박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과정을 설명해야겠어. ㉠
- 페트는 재생 원료로서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겠어. ㉡
- 우리나라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도입한 취지를 밝혀야겠어. ㉢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 알려 주어야겠어. ㉣
-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우리에게 친숙한 농작물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 줘야겠어. ㉠
- 농작물 육종의 개념을 밝히고 육종 기술이 발달해 온 역사를 설명해야겠어. ㉡
- 농작물 육종의 중요성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해야겠어. ㉢
-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중 많은 품종이 외국산임을 그 예와 함께 제시해야겠어. ㉣
- 오늘날 농작물 육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담당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분리배출을 실천해 볼 것을 촉구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 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잘 기억해 두고 물이나 음료를 마시고 난 후에는 투명 페트병을 반드시 분리배출하자.
- ②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이 고급 재생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자.
- ③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이 다소 귀찮더라도 폐기물이 지닌 효용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방법을 꼭 따르도록 하자.
- ④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면 자원 순환의 효과가 있으나 무엇보다 일회용품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자.
- 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자.

45.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p>(가) 전문가 인터뷰</p> <p>“커피박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박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은 1톤당 338kg이나 됩니다. 또한 추출 직후의 커피박은 카페인 함유량이 높고, 수분이 많습니다. 이를 흙에 버리면 카페인과 토양 속 물질이 결합한 상태로 쌓여 식물의 생장을 저해할 수 있고,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부패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p>	<p>(나) 연구 보고서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커피박의 바이오에너지 원료화〉</p> <p style="text-align: center;">현재 우리나라는 커피박의 바이오에너지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발효는 상품화 되었으며,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p>
--	--

(다) 신문 기사

스위스는 우체국 등 2,600여 곳의 수거 거점을 마련해 커피박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만 커피박 수거를 시도 중이다. ○○구는 “수거 시설이 시민들의 커피박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커피박 수거나 운반 등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① (가): 커피박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수치, 커피박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1문단에 추가한다.
- ② (가): 추출 직후 커피박에 남은 카페인과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유발하는 문제를, 커피박이 식물과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2문단에 추가한다.
- ③ (나): 커피박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종류, 커피박이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3문단에 추가한다.
- ④ (다): 효과적으로 커피박을 수거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커피박 수거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문제 상황을 부각하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⑤ (다): 커피박 수거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커피박 수거 시설이 곳곳에 마련되었을 때 예상되는 또 다른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45. <보기>는 (나)를 쓴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신문 기사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억 톤의 음식물이 식품 생산 및 유통과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소비 단계에서 먹고 남은 폐기물로 버려진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환경계획은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 또는 매립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ㄴ. 식품 잡지 「○○」

국내의 한 기업은 상품 가치가 낮아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채소를 활용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인 못난이 채소를 구독 서비스에 결합하여,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 푸드 업사이클링의 한 사례로 꼽힌다.

ㄷ. 전문가 인터뷰

“국내에서만 연간 약 40만 톤의 맥주박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 약 11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맥주박을 폐기하지 않고 과자 등을 만들어 먹으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맥주박 가루는 일반 밀가루에 비해 칼로리는 낮은 반면 단백질은 2배, 식이섬유는 21배가량 많아 영양가도 높죠. 마찬가지로, 유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유청으로 스파클링 음료를, 콩 부산물로 대체육을 만드는 것도 온실가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 ① ㄱ과 ㄴ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식량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에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경우 푸드 업사이클링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 ② ㄱ과 ㄷ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③ ㄴ을 활용하여, 못난이 농산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못난이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상품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④ ㄷ을 활용하여,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언급한 (나)의 내용에 유청과 콩 부산물의 사례를 추가한다.
- ⑤ ㄷ을 활용하여, 맥주박 가루를 밀가루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나)의 내용에 맥주박 가루가 밀가루보다 영양가도 높다는 점을 추가한다.

45.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전문가 인터뷰

“커피박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박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은 1톤당 338kg이나 됩니다. 또한 추출 직후의 커피박은 카페인 함유량이 높고, 수분이 많습니다. 이를 흙에 버리면 카페인과 토양 속 물질이 결합한 상태로 쌓여 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부패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나) 연구 보고서 자료

〈커피박의 바이오에너지 원료화〉

현재 우리나라는 커피박의 바이오에너지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압축연료는 상품화 되었으며,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 되고 있다.

(다) 신문 기사

스위스는 우체국 등 2,600여 곳의 수거 거점을 마련해 커피박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만 커피박 수거를 시도 중이다. ○○구는 “수거 시설이 시민들의 커피박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커피박 수거나 운반 등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① (가): 커피박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수치, 커피박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1문단에 추가한다.
- ② (가): 추출 직후 커피박에 남은 카페인과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유발하는 문제를, 커피박이 식물과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2문단에 추가한다.
- ③ (나): 커피박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종류, 커피박이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3문단에 추가한다.
- ④ (다): 효과적으로 커피박을 수거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커피박 수거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문제 상황을 부각하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⑤ (다): 커피박 수거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커피박 수거 시설이 곳곳에 마련되었을 때 예상되는 또 다른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45. <보기>는 학생이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연구 자료

일회용품의 대체용품인 텀블러와 에코 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감안했을 때, 이를 상쇄하고 환경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한 최소 사용 횟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재료	최소 사용 횟수
텀블러	유리	15회
	스테인리스	17회
	세라믹	39회
에코 백	일반 면	7,700회
	유기농 면	20,000회

ㄴ. 전문가 인터뷰

“텀블러는 단일 재료로 된 일회용 컵과 달리 실리콘,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므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더 많습니다. 또 에코 백은 면의 표백과 가공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품이 더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회용품은 매립 시에 잘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소각 시에는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러니 일회용품 대신 대체용품 하나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ㄷ. 신문 기사

리바운드 효과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텀블러나 에코 백의 재료와 유통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정말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대체용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용품 사용법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

- ① ㄱ을 활용하여, 환경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텀블러나 에코 백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는 최소 횟수를 [B]에 추가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일회용품보다 대체용품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이유를 [A]에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리바운드 효과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B]에 추가한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대체용품의 경우와 같이 일회용품 역시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고 버릴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A]에 추가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정부는 대체용품 하나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임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B]에 추가한다.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와 의미 | 문항 유사

- 단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와 단어의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5.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았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 중심적 의미나 ㉡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36. 윗글의 ㉠, ㉡와 연관 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합성 명사	뜻
칼잠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머리글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
일벌레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입꼬리	입의 양쪽 구석
꼬마전구	조그마한 전구

① '칼잠'과 '구름바다'는 ㉠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② '머리글'과 '물벼락'은 ㉡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는 ㉠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④ '입꼬리'와 '도끼눈'은 ㉡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⑤ '꼬마전구'와 '꽃잠'은 ㉡을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6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8차

37.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 하고,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단위를 단어라 하며, 문장에서 띄어 쓰는 각각의 마디를 어절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한다.

<보기 2>

㉠ 마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같았다.
㉡ 아이는 흠이불만 덮고 맨발로 돌아다녔다.

① ㉠에는 단어의 자격을 지니는 형태소가 다섯 개 있다.
② ㉡에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③ ㉠의 '삶의'와 '잃은'은 두 개의 형태소가 모여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에는 두 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⑤ ㉡의 '흠이불만'과 '맨발로'는 두 개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한다.

39. 밑줄 친 말이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 **주변적 의미**라 한다. 우리말에서는 신체 관련 어휘가 다의어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문맥을 통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① [㉠: 입이 텅인데 겨우 요걸 사 오나.
 ㉡: 오빠는 밤과 국을 떠 일에 넣었다.

② [㉠: 그는 어릴 때 코를 몹시 흘렸었다.
 ㉡: 소는 숨을 쉬기 위해 코를 벌름거렸다.

③ [㉠: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
 ㉡: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④ [㉠: 그는 창밖으로 목을 빼고 두리번거렸다.
 ㉡: 그 아이는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

⑤ [㉠: 이 약을 아이의 손이 안 닿는 곳에 두어라.
 ㉡: 아이들은 구사리 같은 손으로 쓰레기를 주웠다.

- 된소리되기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8.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보시다. ‘(신발을) 신고[신:꼬]’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ㄹ’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ㄹ’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 |
|----------------------|-----------------------|
| ㉠ 피로를 <u>푼다</u> [푼다] | ㉡ 더운 <u>여름도</u> [여름도] |
| ㉢ 대문을 <u>잠가</u> [잠가] | ㉣ 품에 <u>안겨라</u> [안겨라] |
| ㉤ 학교가 <u>큰지</u> [큰지] | |

학생: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의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의 ‘ㄹ’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2022 이감 히든 2차

36. <보기>는 **표준 발음법**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ㄷ, ㄷ, ㅌ, ㅌ,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ㄷ, ㄷ, ㅌ, ㅌ,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① ㉠은 앞 어근에 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제2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용으로써 제23항의 적용을 받는 단어로 보이게 되었어.
- ② ㉡은 제시된 표준 발음법 항목상으로는 ‘ㄴ’ 소리가 덧날 근거가 없지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용으로써 제18항의 적용을 받는 단어로 보이게 되었어.
- ③ ㉢은 본래 제29항의 적용만을 받는 경우이지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용으로써 제18항의 적용을 함께 받는 단어로 보이게 되었어.
- ④ ㉣이 허용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해+빛’이 사이시옷을 받쳐 적용으로써 제9항의 적용을 받는 단어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겠어.
- ⑤ ㉤과 ㉥에서, 사이시옷은 우선 제9항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어.

문장 성분, 문장 구조 | 문항 유사

• 문장 성분 및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닿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6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7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흘문장과 흘문장이 만나 겹문장이 될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다음 '자료'의 겹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에 대해 설명해 보자.

[자료]

- ㉠ 그는 집 안을 화려하게 꾸몄다.
- ㉡ 얼룩이 생긴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
- ㉢ 그가 본 그녀는 10년 전의 모습과 똑같았다.
- ㉣ 그가 아침에 눈을 뜨니 11시가 넘어 있었다.
- ㉤ 그들은 매주 교회에 가지만 오늘은 한 사람만 갔다.

- ① ㉠에서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② ㉡에서는 안긴문장의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 ③ ㉢에서는 안긴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 ④ ㉣에서는 뒤 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⑤ ㉤에서는 뒤 절의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자료]

- ㉠ 오늘 만날 친구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 ㉡ 아이는 우산도 없이 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 ㉢ 새로 세운 운동장은 야구 연습을 하기에 좋다.

아래는 위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 ㉠ ㉡와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 ㉡와 달리 ㉢에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 ㉡의 안긴문장 개수는 ㉢의 안긴문장 개수보다 더 많다.
- ㉣ ㉡와 달리 ㉢에는 전성 어미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 ㉡와 달리 ㉢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① a, b, c ② a, c, d ③ a, d, e
- ④ b, c, d ⑤ b, c, e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37.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내가 오늘 만난 동생은 학생이 아니다.
- ㉡ 이 그릇은 쌀밥을 배불리 먹기에 좋다.
- ㉢ 이 동네에 사는 아이가 눈이 정말 크다.
- ㉣ 밤을 꼴딱 샌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 ㉤ 방금 도착한 아이들은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과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과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에는 용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37.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우리가 운동하던 공원이 사라졌다.
- ㉡ 나는 그가 모아 놓은 종이를 분리하였다.
- ㉢ 친구는 집에 돌아온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 ㉣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친구를 용서했다.
- ㉤ 우리는 그가 경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 ① ㉠: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 ② ㉡: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 ③ ㉢: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 ④ ㉣: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⑤ ㉤: 문장이 관형절로 안기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제작 | 문항 유사

매체-언어

- 뉴 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확인하는 문제를 다루었음.
- 매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 매체를 활용한 대화의 특성을 묻는 문제를 다루었음.
- 대화를 통해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4 2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 4차, 6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 1차

4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②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군.
- ③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증명서나 행정 서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군.
- ④ 누리집 상단에 홍보 문구와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이 부각하고자 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은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가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 ③ ㉢은 명사형 어미 '-고'를 사용하여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 대상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40. ㉠~㉣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기사 내용이 잘못되어 바로잡아야 할 경우 수용자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 수용자는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 수용자는 생산자의 이용 허락이 없이도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다.
- ④ ㉣: 기사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⑤ ㉤: 수용자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생산자가 기사 작성 시에 참고했던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 ② ㉡: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다.
- ③ ㉢: 접속 부사 '하지만'을 활용하여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연결 어미 '-면'을 활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뉴스에서 언급된 블로그를 운영 하는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42.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윤'은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② '해윤'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 ③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중서'에게 전송하였다.
- ④ '설아'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
- ⑤ '설아'는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하였다.

43.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했다.
- ②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기호의 모양을 사용했다.
- ③ '중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에 기부했을 때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그려 넣었다.
- ④ '해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이 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했다.
- ⑤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 주듯이 말풍선을 제시했다.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주'는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② '우성'은 기존의 대화 참여자가 아닌 대화 참여자를 새롭게 대화방에 추가하여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③ '시아'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포스터의 이미지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 ④ '시아'와 '규민'은 한글 자음자만을 입력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⑤ '회주'는 해당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규민'이 언급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45. (가)의 제작 계획을 (나)의 홍보 포스터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아리의 주요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표로 정리하여 포스터 하단에 제시했다.
- ②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비어 있는 원 안에 동아리 이름 두 글자만을 넣어 포스터 중앙에 배치했다.
- ③ 동아리 지원서 제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지원서 제출 페이지가 연결된 QR 코드를 삽입했다.
- ④ 학생들의 동아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더불어 즐겁게 활동해 볼 것을 권하는 의미의 문구를 포스터 상단에 배치했다.
- ⑤ 풍물놀이의 흥겨움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종류의 국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했다.

1인 미디어 방송 비평 | 지문 및 문항 유사

매체

-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온라인 매체 환경의 특성과 수용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내용을 지문과 문항으로 다루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준5 7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준6 2차

[화면 2]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의 태도

작성자: 재원

최근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방송 제작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1인 미디어 방송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가 즐겨 보는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 역시 밀리를 혼자 돌아다닌다든가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참신함이 돋보인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하다.

45.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혜원'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접했던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재원'은 '영진'과 달리, 자신이 본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영진'은 '지수'와 달리, 고정 시청자 수가 늘지 않는 1인 미디어 방송 사례를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1. <보기>를 참고할 때, 위 방송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생생한 현장 화면을 통해 정보를 실재감 있게 전달하고, 시청각 자료와 자막 등을 활용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터넷의 쌍방향적 특성이 결합되어 생산자가 수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개방적 특성을 지녀서 누구든 생산자가 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방송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수용자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따져 가며 수용할 필요가 있다.

42. 다음은 (가)의 보도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시청자 1과 3은 특별전에 전시된 문화재에 관해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② 시청자 1과 5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방법과 관련하여 뉴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③ 시청자 2와 4는 뉴스에서 언급한 특정 환수 문화재에 관한 정보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지적하였다.
- ④ 시청자 2와 5는 뉴스에서 언급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현황에 관한 정보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⑤ 시청자 3과 4는 뉴스에서 전달하는 특별전 개최 일정에 관한 정보가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한지 지적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3 3층(양재동, 아산벤처타워)
T 02-567-9507 F 02-567-9509 www.yigam.co.kr